복 있는 사람 ⑦ -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 중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살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 여기 ‘화평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노포이오이’, 이것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는 뜻의 ‘포이에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사람들’ 혹은 ‘화목한 사람들’과 같이, 한 인간의 성품이나 한 집단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막9:50)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12:18)

이런 말씀들은 ‘평화가 있는 곳에서 그 평화를 지키라’는 권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보다 강합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본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신 화평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1:20)**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천지만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1:21-22)**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을 또다른 관점에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엡2:14-16)**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과 적대감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의 찢김을 통해 허물어버리시고 그 둘이 자기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인간관계 속에 거짓과 폭력, 오해와 갈등, 그로 인한 내면에 미움과 시기, 갖가지 질병, 가난, 사회적 불의와 사고, 이념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국가간의 전쟁,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등…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들, 또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따라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몸 버려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짜 평화를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다소 당황스럽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이 가족간에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단 말인가? 언뜻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도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화평’은 우리가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짜 평화’를 말합니다. 그저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곪고 있어도 겉으론 괜찮다 하며 덮어만 두는 상태, 기존의 질서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어떤 역본에는, 세상에 검을 ‘던지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어 생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검’은 수술용 도구로 쓰여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10:10)**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살리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예리한 수술도와 같아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파고들어 그 속에 숨은 동기와 내밀한 욕망을 건드리고, 거기 암덩이처럼 붙어 있는 추악한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살리는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전과 똑같은 틀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참고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는 건 자기 삶의 질서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며, 이는 이제껏 속해 있던 세계와의 충돌과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의가 일상이 된 한 집단 안에서 소신껏 정의롭게 행하려는 신앙인은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 입장에서는 그의 신앙적 행동이 그룹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의 신앙생활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평화냐 불화냐’가 아닙니다. 그 구성원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평화가 ‘어떤 평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평화, 즉 ‘샬롬’은 단순히 충돌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 그 상호간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평화와 번영, 기쁨과 조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내 회사, 내 교회, 내 민족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다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며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저 가짜 평화를 분별하고 거부하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평화의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압제받던 시절, 어느날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삿6:14)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 기드온에게 매우 곤혹스런 일 하나를 시키십니다.  그의 아버지 소유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으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만 두려워서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합니다. 아침이 되니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기드온은 사람들의 추궁을 받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거냐,*

*너를 죽여 신들의 노여움을 풀어야 우리 모두가 살겠다.*”

하지만 그때 요아스가 나서서 아들을 변호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기드온에겐 별명 하나가 생깁니다. ‘여룹바알’ -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음에 그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로 인식되었지만, 그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은 기존의 ‘가짜 평화’에서 벗어나 살아 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일은 현실의 가짜 평화를 분별하며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람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가짜 평화의 보호권 밖으로 나가는 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안’으로 번역된 말이나, 앞에 ‘화평’으로 번역된 말이나, 원어는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평화, 그분이 세상에 계시며 누렸던 그 평화를 그분들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가짜 평화를 거부하고 예수님 주시는 이 참 평화를 소유할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공부 시간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자 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긴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꺼리던 길이었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좀 이상하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조차 않으려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이 먼저 앗시리아에 멸망합니다. 이후 앗시리아의 이민정책에 따라 다른 지역 이방인들이 거기로 이주해 들어옴으로써, 사마리아는 절반은 북이스라엘, 절반은 이방이 됩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와 종교로 혼탁해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고, 이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315년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체적인 예배처소를 그리심 산에 세우고, 이어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다시 허물어뜨리는 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당시 그 두 그룹은 절대 상종해선 안 될 사람들, 그릇도 함께 써선 안 되고 음식도 함께 나눠선 안 될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해 가시고, 거기서 만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공고하게 존재하던 적대감의 장벽이 예수님 마음 안에는 애당초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직 그것만이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여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 전파함으로, 그곳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 더 함께 계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스토리와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장벽이 어느 순간 스르르 무너지는 기적, 무엇이 그곳에 이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평화가 그 시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평화는 이처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 마음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은 분명 헌신과 희생을 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편으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분이 치르신 희생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9:23)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해 줍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적대감 이면에는 이전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한 이면에는 그들로부터 당했던 압제의 역사가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이면에는 그들로부터 겪었던 배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사하여지지 않은 죄들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빚처럼 남아 있었기에,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일은 그처럼 멀게만 느껴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분단된 한반도 남북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다시 또 피흘리는 중동의 현실 속에서도, 그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평화란 아득히 멀리 있는 환상인 듯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일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거기 이르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는 용서이겠지만, 자기 잘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호의는 여기 이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며 남겼던 마지막 말, 그것 역시,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행7:60)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길 중 하나는   이처럼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셨던 화평의 사역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죄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시 또 다시 생각해 보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나도 서는 일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또 바라볼 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